

‘삼다’와 ‘돌하르방’의 문학적 의미

강 영 기*

차 례

1. 서론
2. 지역의 이미지와 문학
3. 시 속에 나타난 ‘삼다’와 ‘돌하르방’의 의미
4. 결론

1. 서론

제주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제주에 대해 돌이 많은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여자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주를 삼다도라 부른다. 한편, 제주하면 떠오른 것으로 돌하르방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제주=돌하르방’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삼다’와 ‘돌하르방’은 제주를 제주 본연적인 모습으로 이미지화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다’와 ‘돌하르방’은 문학의 소재가 되며, 시인은 시를 통해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제주를 제주답게 이미지화하는 요소에 대한 문학적 논의는 많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 학문적으로 접근한 논의로는 김영화, 김병택, 김동윤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김영화는 「제주어와 문학」¹⁾에서 제주답게 만드는 요소로 제주어를 들고 있다. 그는 제주 문학이 제주 문학다운 특성을 가지고, 그것이 뛰어난 문학이 되려면 제주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주 문인들 가운데 언어를 덜 쓰는 시인들은 많은 데 비해 언어를 폭넓게 구사해야 하는 소설가가 적은 것은 제주 사람들의 지닌 언어 구사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견해를 들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면 제주어를 연구하고, 그 바탕 위에 작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학에서 제주어의 활용 방안을 통해 제주 문인들이 제주어를 잘 알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김병택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들」²⁾에서 제주의 오름, 바다, 구비문학, 4·3등을 거론하면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은 제주도의 참모습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주도를 관광한 것만으로 제주도와 제주사람들을 담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한다.

김동윤은 「제주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방안」³⁾을 통해 제주의 힘을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천혜의 자원을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접맥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고소설 「배비장전」과 현기영의 「바람타는 섬」을 문화콘텐츠화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이 속에서 그는 지역문학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지역 문학 또는 지역 문화의 관점에서 제주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론화한다는 점과 제주 문화와 문학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꾸준히 구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삼다’와 ‘돌하르방’을 소재로 한 시 작품에 대한 구명을 통해 시인은 그것에 대해 어떤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지닌 ‘삼다’와 ‘돌하르방’

1)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39-48면

2) 김병택, 「한국 문학과 풍토」, 새미, 2002, 230-232면.

3) 김동윤, 「제주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영주어문」제13집, 영주어문학회, 2007, 111-129면.

에 대한 의미가 시를 통해 어떤 문학적 의미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지역의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치환할 때 어떤 문학적 의미가 생성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이를 구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품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이 글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제주문학전집-1』·『제주문학전집-2』(제주문인협회, 1996), 『문학속의 제주-시선집』(제주문화원, 1997)이다.

2. 지역의 이미지와 문학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역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지역이라는 공간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지역이라는 공간에 새겨진 지역 사람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⁴⁾ 여기서 지역이라는 공간에 새겨진 역사, 심리, 정치, 가치관 등은 바로 지역의 문화이다. 따라서 지역 문화는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

지역 문화가 지역 주민들의 의식,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산물이기 때문에 문학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문화의 습득 과정도 무의식적이거나 또는 공식적일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이 있기는 하지만, 문학 작품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⁵⁾ 특히 그것이 지역의 장소 혹은 공간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만날 때 그 의미를 형성한다. 그래서 문학은 역사, 지리, 언어, 민속, 가치관, 공동체 의식 등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차적 조건이 된다.

4)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5면.

5)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중』, 논형, 2006, 33-34면.

지역 이미지 역시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이미지가 지역이 지닌 정체성과 특성을 특화한다. 그래서 작가는 지역의 지닌 정체성과 이미지의 소산인 지역 상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려 노력한다. 작가의 이러한 의도는 지역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상품화되는 상황⁶⁾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막으려는 작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을 형성하는 이미지는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의미가 재생산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또한, 작가는 지역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지닌 의미가 세대로 올바르게 전승할 수 있게 한다.

3. 시 속에 나타난 '삼다'와 '돌하르방'의 의미

지역 문학의 차원에서 볼 때, 시인은 '삼다'와 '돌하르방'을 소재로 문학적 작업을 전개한다. 시인의 이러한 의도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지역 상징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삼다'와 '돌하르방'이 시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며 어떤 의미가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시 속에 나타난 '삼다'

三多란 '石多(돌), 風多(바람), 女多(여자)'를 말한다. 그래서 제주도를 三多島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러한 제주의 자연·인문 환경에서 제주를 상징하는 한 요소인 '삼다'는 시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고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예를 든다면 돌하르방 모습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꽃이나 오미자의 그릇을 삼는다든가, 심지어는 라이터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다.

3.1.1. 돌

돌은 화산지형인 제주를 상징한다. 그래서 제주는 현무암 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현무암으로 돌하르방뿐만 아니라 절구통 등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 경계석 등으로 현무암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집이나 무덤의 돌담, 밭의 돌담, 보도 블록 또는 건물 입구의 보도 등도 현무암을 이용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제주 사람들에게 돌은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일부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편, 다음에 제시한 작품에는 돌의 지닌 문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밭과 밭 사이 돌담은 한 때 바람을 파먹기도 하고
 내던져 버리기도 한다 승승 뚫린 구멍 사이로 아무
 바람이나 접근하지 못 한다 바람 거세어 갓 고개
 내민 푸른 새싹들 몽텝몽텝 목 잘라 버리면 고이는
 아픔 덩어리 참지 못하여 누군가 눈물 흘릴 것이므로
 돌담은 아무 바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작고 여린 바람만 받아들인다 바람은 돌담 앞에
 이르면 더 짓쳐가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잠시 고민해야 한다 그러다 부드러운 몸짓으로 돌담을
 뚫고 들어간다 돌담은 아픈 그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서 있다 나는 밭과 밭 사이에서 그 조그마한 진실을 배웠다

— 김광수, 「돌담」⁷⁾ 전문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담은 약자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존재이다. 그래서 돌담은 “한 때 바람을 파먹기도 하고 내던져 버리기도” 한다. 또한 “승승 뚫린 구멍 사이로 아무 바람이나 접근하지 못”하게도 한다. 돌담이 이렇게 바람을 막아서는 이유는 “바람 거세어 갓 고개 내민 푸른 새싹들

7)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57면.

뭉툭뭉툭 목 잘라 버리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돌담을 ‘세상에서 힘이 약한 그 무언가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시인의 형상화는 결국 돌담에 대한 문학적 의미가 된다.

한편, 바람은 “돌담 앞에 이르면 더 짓쳐가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몸짓으로 돌담을 뚫고 들어간다. 하지만, 돌담은 “아픈 그 누군가를 위해” 절대 강자인 바람을 통과 시키지 않는다. 물론 부드러운 몸짓일 때만 통과를 허락한다. 이 속에는 돌담의 지닌 원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묵묵함이며, “아픈 그 누군가를 위”한 배려심이다. 이러한 돌담의 배려는 시인에게 진실을 가르쳐준다.

용왕이 자리하여
 세상 식구들을 매일처럼
 보살펴준 제주 바다
 나는 그 바다 위, 돌 위에서
 먼저 간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리워한다.

— 김명경, 「돌 위에서」⁸⁾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시 속을 들여다보면 그 돌은 그리움을 뒷받침하는 소재가 된다. 인용 시에 등장하는 ‘나’는 제주 바다를 통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제주 바다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매개가 된다. 하지만, ‘나’는 바다를 뚫고 나온 돌 위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는 돌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은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따라서 시인에게 돌은 제주 바다 위에 솟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으로 치환된다. 그래서 ‘돌=그리움’이라는 문학적 의미가 생성된다.

8)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71면.

제주섬을 돌다보면
돌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오죽 서러움 컸으면
속 까지 검게 타버렸을까
섬만 지키는 고집으로
너무 검게올어
섬은 섬 되로
바다는 바다 대로
그 숨소리 그 언어까지도
검어버린 너의 육신
가슴이 검게 타들었던 그 아린
흔적 언제까지
어머니 가슴인양
검게 타고만 있구나

— 채바다, 「제주 섬을 돌다 보면-현무암」⁹⁾ 전문

인용 시에는 제주 섬에 내재한 돌들의 새까만 이유가 제시된다. 그것은 서러움에 기인한다. 그 서러움은 섬만을 지키겠다는 돌의 지닌 고집에서 생성되었다. 돌의 고집은 섬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검게 만든다. 그래서 바다, 숨소리,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검게 타들게 한다. 이러한 시인이 지닌 돌에 대한 인식은 영원한 고향인 어머니를 통해 제주에서 생활하는 모든 제주사람들의 고향은 섬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그 속에서 돌은 “언제까지 어머니의 가슴인 양” 섬을 위해 검게 타들어 간다. 그 “타들어 감” 속에는 제주 또는 섬을 지키려는 의지가 돌의 문학적 의미로 담겨진다.

3.1.2. 바람

제주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 하지만, 제주에서 바람은 더 이상 자연현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 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9)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423면.

삶에서 바람 역시 하나의 문학적 의미를 형성한다. 다음에 인용한 시를 통해 바람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살필 수 있다.

나는 저리도 눈 내려 춥다고 방에서 안주하다 창문을
경계하여 몸부림치는 바람의 절규로 들었다
벽에 부대끼면서도 내면으로 파고들려는 강한 의지
어디론가 떠나가며 사라지며 마지막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다급하게 두드린다
나는 그의 진실을 체감하기 위하여 창문을 약간 열었다
개방의 틈새로 다가선 그는 나처럼 떠돌다
무심코 사라지는 한낱 바람이지 말고 죽어도 사람이
돼라한다

— 김광수, 「바람의 말씀」¹⁰⁾ 전문

인용 시에 나타나는 제주 바람의 속성은 적극성이다. 그 적극성은 “눈 내려 춥다고 방에서 안주”하는 시인을 밖으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시인은 “창문을 약간 열”게 된다. 그리고 시인은 제주 바람이 지닌 강인함 혹은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무심코 사라지는 한낱 바람이지 말고 죽어도 사람이 돼라”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바람을 통해 현대인이 지닌 내적 폐쇄성 혹은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 힘으로 형상화된다.

인용 시를 통해 나타난 제주 바람은 어쩌면 닫힌 삶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바람은 현대인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무심코 사라지는 한낱 바람이지 말고 죽어도 사람이 돼라.”라는 교훈적 의미이다. 이것은 바람이 지닌 문학적 의미도 된다.

10)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56면.

제주도의 사월 바람은
거슬러 날아오는 소리개의
발톱

돌담 너머
수평선 꽃대 끝
그 이름은 아직도 숨을 죽인다

내 고향 오조리는
소라껍질 같은
가슴이 빈 사람들만
답답한 봄을 맞는다.

— 강중훈, 「오조리의 노래」¹¹⁾에서

인용 시에서 시인은 제주도의 사월 바람을 “소리개의 발톱”이라 부른다. 시인이 제주 바람을 소리개의 발톱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오조리 사람들이 지닌 한과 관계가 있다. 오조리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일을 한다. 그래서 바다는 생산의 터전이 된다. 생산의 터전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삶의 공간이면서 한의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소리개의 발톱처럼 바람이 불면 바다는 성난 파도로 뒤덮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게 된다. 여기서 숨을 죽이는 이유는 자연에 대한 복종의 의미도 있지만 제주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바다에서 죽기 때문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시인은 바람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소라껍질 같은 가슴이 빈 사람들만 느끼는 답답한 봄”으로 형상화되는 한이다. 결국 시인에게 바람의 문학적 의미는 시인을 포함한 오조리 사람들이 느끼는 한이며, 더 나아가서는 제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한이 된다.

11)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29면.

화산석 구멍 속으로 넘나드는 4월 바람.
이제는 닳할 언어마저 멎들고 지쳐버린
어머님 젓무덤이 저리 고운 것은
오늘도 신원을 꿈구는
꽃이 핀다
꽃이 진다.

— 오영호,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¹²⁾에서

인용 시에 나타나는 4월 바람은 제주 4·3의 아픔이다. 시인은 4·3의 아픔을 “닳할 언어마저 멎들고 지쳐버린 어머니 젓무덤”으로 표현한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 속에는 4·3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적 아픔보다는 제주라는 큰 틀에서의 아픔을 형상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시인은 신원의 꿈을 통해 아픔을 이겨내려 한다.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꽃이 핀다 꽃이 진다.”의 반복을 통해 끝없는 연속이 된다.¹³⁾ 이러한 연속은 시인이 지니고 있는 4·3의 아픔을 이겨내려는 치유책이 된다. 결국, 인용 시에 나타난 제주의 4월 바람은 4·3의 아픔을 형상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인 신원 공간에 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시인에 의해 생성된 바람이 지닌 문학적 의미이다.

3.1.3. 여자

삼다 중 하나인 여자가 제주에 많은 이유는 남자 또는 남편이 먼바다에 나가서 오랜 시간 바다 일을 한다거나, 혹은 그 바다에서 이성과 하직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 바다는 생계유지의 공간이 되며, 여자는 노동의 주체가 된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에는 노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12)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292면.

13) 강영기, 『제주문학 담론』, 국학자료원, 2006, 260면.

검푸른 바다
태왁 짚고 끈 동여 맨
굽은 허리춤
뜸북 너울 치고
혹, 큰 숨 몰아 비창 들고
자맥질 하면
물거품으로 치솟는
당신 가슴팍

— 강윤심, 「잠녀」¹⁴⁾에서

인용 시는 생계유지를 위해 바다 속에서 작업하는 해녀 혹은 제주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것은 “뜸북” 또는 “비창”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시인은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자맥질 하면 물거품으로 치솟는 당신의 가슴팍”으로 표현한다. 시인은 “가슴팍”이라는 시어를 통해 거친 제주 바다 속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작업을 하는 제주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속에 ‘한’의 의미를 담는다. 다음에 인용한 작품 역시 제주 여인 혹은 해녀의 삶에 대한 한이 나타난다.

가장 춥고 외로운 날
물로 일어서는 바다마을의 주인
제주 해녀여!

생과 사를 넘나드는 날렵한 존재로
키보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해안도로 따라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간다

자식 많이 낳은 죄밖에 없는데
뇌선으로 배 채워도 눈 하나 꿈쩍 않고

14)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26면.

은물결 출렁이듯 내 가슴에 와박히는
제주 해녀여!

— 김정자, 「제주 해녀」¹⁵⁾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가장 춥고 외로운”은 해녀의 삶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바다 속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날렵한 존재”로 살아가는 해녀에게 어찌면 “가장 춥고 외로운”이라는 시구는 그녀들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가슴 아프면서 적절한 수식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한’이라는 일상적 의미가 문학적 의미로 치환된다.

한편, 가장 춥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녀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깊고 넓다. 비록 “자식 많이 낳은 죄” 때문에 바다 속에 들어가 생계유지를 위해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의 여파로 “뇌선”이라는 진통제로 배를 채워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 하나 끄적 앓고” 바다에 들어간다. 이 속에 제주 여성의 의미가 새롭게 생겨난다. 그것은 생계 유지의 이면에 숨겨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삼다 중 하나인 ‘여자’의 새로운 문학적 의미가 된다.

유채꽃 눈부서
눈물난다, 비바리아
바닷바람에 씻긴 살결
고운 얼굴 비바리아
쪽빛하늘 닮아서, 남빛 바다 닮아서
맘씨조차 고운 탐라 비바리아,
니가 웃으면 감귤 냄새 나고
니가 웃으면 미역 냄새 난다, 비바리아
바다에 뛰어들어 용궁 나들며
부푼 가슴에 안고 오는

15)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118면.

진주조개 한 이름,
소라, 전복 따다 팔아
시집 갈 준비하며
뉘 맘 바다에 풍덩 빠져
해엄칠 날 기다리는
제주 비바리아.

— 신규호, 「비바리」¹⁶⁾ 전문

인용 시 역시 해녀의 삶을 살아가는 제주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하지만, 인용 시의 비바리는 앞에서 지금까지 보인 해녀의 의미와는 변별된 모습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제주 여성이 지닌 순수함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이 지치고 고단해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제주 여성에게는 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제주 여성의 모습을 “니가 웃으면 감귤 냄새 나고 니가 웃으면 미역 냄새”가 난다고 표현한다. 이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제주 여성의 여유가 묻어난다.

시인은 젊은 비바리를 통해 그들이 지닌 동경 혹은 설레임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젊은 비바리에게 이성애에 대한 사랑 혹은 결혼하고 싶은 설레임은 힘든 노동을 즐겁게 만든다. 이러한 모습을 시인은 “바다에 뛰어들어 용궁 나들며 부푼 가슴”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시인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뉘 맘”이라는 이상적 인물을 설정하고 그 바다에 빠져 해엄칠 날을 기다리는 “비바리”의 순수한 모습 혹은 설레임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결국 문학적 의미를 생성한다. 그것은 제주 여성 혹은 여자가 지닌 ‘순수한 모습’ 또는 ‘설레임’이다.

지금까지 시 속에 나타난 ‘삼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 속에 나타난 ‘삼다’는 ‘삼다’가 지닌 일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형상화되며 그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작가의 문학적 작업은 제주

16)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263면.

상징의 하나인 '삼다'를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주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3.2 시 속에 나타난 '돌하르방'

제주도에서 돌하르방¹⁷⁾은 '우석목(제주목)', '무석목(대정현)', '백수머리(정의현)' 등으로 불린다. 영조 3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돌하르방은 성문 앞에 세워져 수호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주술 종교적, 경계 금표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⁸⁾ 육지의 장승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결 멋들어진 품위를 머금고 있다.

돌하르방은 통방울눈을 부리부리하게 굴리면서, 위엄 있게 짝 다문 입술, 주먹코, 그리고 한쪽 어깨를 치켜 올린 다소 어줍잖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외세의 온갖 침탈과 자연의 재해에도 굴함 없이 싸워온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주 상징이다.¹⁹⁾

이러한 제주 상징인 돌하르방은 문학 또는 시의 소재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돌하르방이 시인에 의해 어떻게 형상화되고 그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 돌하르방은 '돌하르방'·'돌하루방'·'돌할으방' 등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표기는 문학 작품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논의를 할 때는 '돌하르방'으로 표기하고, 시 작품에 '돌하루방'·'돌할으방'으로 표기된 것은 작품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18) 돌하르방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은 ① 문지기 노릇을 한다. ② 守衛 防衛의 구실을 한다. ③ 무덤에 세워진 童子石의 기능과 비슷하다. ④ 守護神格이다. ⑤ 防邪塔을 세우는 이치와 비슷하다. ⑥ 고을 안에 邪氣가 침입함을 막기 위함이다. ⑦ 惡疾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⑧ 戰亂이 번지거나 일어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⑨ 고을(州縣廳所在地)의 소재지를 알리기 위해서 세워졌다. ⑩ 고을(州縣廳所在地)의 尊嚴性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와 같이 나타난다.(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230-231면.)

19) 제주시 관덕정에 세워진 '돌하르방' 해설 참조.

3.2.1. 수호신적 의미

제주 사람들에게 돌하르방은 제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돌하르방을 소재로 다룬 시에도 그것은 수호신으로 그 의미가 형성된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도 그렇다.

바당드레 감수광 어드레 감수광
아무디도 가지 말앙
이 섬을 지켜 줘써
제주섬을 슬퍼 줘써
이 섬의 구신이 되어 줘써
...(중략)..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만 민영 살암찌
돌할으방 어딜 감수광
아무디도 가지 말앙
제주 섬을 슬퍼 줘써

—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²⁰⁾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하르방은 제주의 수호신으로 형상화된다. 그래서 시인은 돌하르방에게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제주에 남아 있으면서 제주를 지켜달라고 애원한다. 그리고 시인은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이여 돌할으방만 민영 살암찌”라고 이야기하면서 돌하르방을 제주를 구원해주는 존재 또는 제주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밝힌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제주 섬을 슬퍼줘써”를 통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

인용 시에 나타나는 돌하르방이 제주 섬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면, 다음에 제시하는 돌하르방은 동네를 보살피는 존재이다.

황금분할의 구도 다 버리고
가분수의 몸체로 불박이다 못해

20)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 제주문인협회, 1996, 378-379면

다정다감의 모습으로
동네 어귀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셨다
어깨의 굽은 선이며 맞잡고 있는 넉넉한 손이며
바람에 구멍 송송 뚫린 이끼 낀 허름한 옷이며
주름지고 거친 살갓으로 나의 얼굴 까칠하게 부비시며
당신의 입가에 지으시던 야릇한 미소
그 미소는 기쁨이셨던가
슬픔이셨던가
말해 무엇하랴

— 문복주, 「돌하루방」²¹⁾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하루방은 동네 어귀에 서서 동네 사람들을 기다리는 존재로 그려진다. 시인은 돌하루방을 “황금분할의 구도 다 버리고 가분수의 몸체로 불박이다 못해 다정다감의 모습으로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는 이”로 형상화함으로써 “돌하루방”을 다정다감한 존재로 부각시킨다.

한편, 시인은 “주름지고 거친 살갓으로 나의 얼굴 까칠하게 부비시며”라는 표현을 통해 시인과 돌하루방 사이에 생성된 친근함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시인은 “그 미소는 기쁨이셨던가 슬픔이셨던가 말해 무엇하랴”라는 언술을 통해 돌하루방의 미소 속 의미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이를 통해 시인은 돌하루방의 의미를 동네 어귀에서 만나는 일상적인 모습 또는 친근한 모습으로 그 의미를 생성한다.

다음에 인용한 작품은 제주의 수호신 또는 마을 어귀를 지키는 존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나타난다.

제주도는 물론 이 나라의 수호신으로서
우리들의 안녕을 빌고 또 빌어
안으로 꼭 다문 배꼽에 등불을 켜는구나.

21)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2』, 제주문인협회, 1996, 34-35면.

돌할아버지는 참으로 신비하여라
 돌 위에 돌 하나 황금보다 더 귀하나니
 이승을 굴러굴러 천년 만년 우리들을 지켜주나니
 — 하길남, 「돌하르방의 노래」²²⁾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하르방은 우리나라의 수호신이다. 시인에게 돌하르방은 “우리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시인은 안녕을 주는 돌하르방의 모습을 통해 “안으로 꼭 다문 배꼽에 등불을 켜는구나.”라고 표현한다.

한편, 시인은 돌하르방을 천년 만년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천년 만년 우리들을 지켜주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돌하르방을 수호신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시인은 돌하르방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우리의 지킴이’로 부여한다.

3.2.2. 수호신 이외의 다른 의미

돌하르방을 소재로 한 시 작품에는 수호신적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돌하르방이 지닌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은 변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곳곳한 돌하르방을 문학적 의미로 담는다.

골동품과 같은
 참으로 딱하기만 한 노인이,
 청학골 선비의 후예들도, 요즘은
 구경거리로 조롱 받고 있음을 아직도 모르느냐.

찾아드는 신혼부부들도 주저함이 없이
 너의 목에 매달려 사진도 찍고
 태평양 넘어 등글어 온 코큰 관광객들마저

22)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제주문화원, 1997, 660면.

너의 코를 문지르고 비웃으며 지나가는구나.

무엄함 까마귀놈까지
너의 상판대기에 물똥을 갈기고 날아가는데,
그래도 너는 변함 없는 충성으로
말은 구실을 다하고 있다 우길 것이냐.

조랑말 타고 떠난 수령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 노인아.
이젠 눈을 감고 물러설 일이다.
얼마나 세상이 야박해졌는가를
아느냐 고집불통의 노인아.

— 양중해, 「돌하루방」²³⁾에서

인용 시에서 시인은 돌하루방을 “꿀동품과 같은 참으로 딱하기 만 한 노인”으로 형상화한다. 그래서 시인은 돌하루방을 조롱의 대상으로 폄하한다. 그 폄하의 내용은 “목에 메달려 사진 찍는 모습, 코를 문지르며 비웃는 모습, 까마귀의 배설물을 둘러쓰는 모습, 고집불통의 노인”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폄하의 모습은 역설이다. 시인은 역설적 상황을 통해 진정으로 돌하루방을 그려낸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 없는 충성스러운 모습, 말은 구실을 곳곳이 다 해내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용 시를 통해 시인은 돌하루방을 세태의 변화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 형상화하며, 그것을 문학적 의미로 담아낸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내재한다.

돌담 곁
물질 나간 이들
기다리고 선,

23)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 제주문인협회, 1996, 250면.

까맣게 그을린 모습의……

언제 드러날까
먼 바다의 이어도
세월의 물결 넘어
눈썹 위에 그리고 썼다.

— 김재희, 「돌하르방」²⁴⁾ 전문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하르방은 기다림의 존재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인용 시에서 진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물질 나간 이들의 모습과 그들을 기다리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제주의 일상이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숨겨진 “이어도”를 통해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제주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그 아픔은 이어도 주변 바다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 남편을 삼시에 잃은 제주 여인이 지닌 한이다. 그러한 한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인은 독자에게 들려준다. 그래서 시인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한을 포괄적 상징인 돌하르방으로 묶어내면서 그 의미로 기다림을 담아낸다. 따라서 ‘기다림’은 돌하르방이 지닌 또 다른 문학적 의미가 된다. 다음에 제시한 작품에는 해학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나타난다.

웬일일까
왜 그랬을까
그 얼굴에다
남성의 심볼인 부리를 머리에 이고
두 손 가슴에 모아
겸손을 나타내며
괴로움을 웃음으로 달래 주던
우리들의 조상

24)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제주문화원, 1997, 191면.

— 이정립, 「돌하루방」²⁵⁾에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돌하루방은 해학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돌하루방을 “남성의 심볼인 부리를 머리에 이고 두 손 가슴에 모아”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시인은 “괴로움을 웃음으로 달래 주던 우리들의 조상”으로 돌하루방을 정의함으로써 돌하루방이 지닌 문학적 의미를 웃음을 주는 해학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돌하루방에 대한 시적 형상화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돌하루방에 대한 의미는 수호신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제주 사람들의 인식을 시로 형상화한다. 한편, 수호신과는 다른 의미도 나타난다. 그것은 세태의 변화 속에서도 꾀꾀하게 자신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모습의 돌하루방, 기다림의 대상인 돌하루방, 해학과 웃음을 주는 돌하루방이다. 이러한 시인의 문학적 의미 부여는 결국 돌하루방에 대한 새로운 의미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제주 상징인 ‘삼다’와 ‘돌하루방’의 문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 속에 나타난 ‘삼다’를 살펴보면, ‘삼다’가 지닌 일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그 의미가 형성된다. ‘돌’은 약자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리움을 뒷받침하는 존재, 섬을 지키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그 의미를 얻고 있다.

② 한편, ‘돌’이 지닌 공통점은 궁극적으로 제주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혹은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존재이다. 이러한 의

25)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제주문화원, 1997, 492면.

미 부여는 결국 '돌'이라는 의미를 문학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③ '바람'의 경우는 현대인의 지닌 내적 폐쇄성 혹은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 힘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제주 사람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제주의 바람은 4·3의 아픔을 형상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인 신원 공간에 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④ 시인은 삼다 중 한 요소인 '여자'에서 제주 여성 혹은 해녀를 생산의 주체로 그려낸다. 이 속에서 시인은 제주 여성의 지닌 한 혹은 힘든 노동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인은 제주 여성들의 한을 한으로만 남게 만들지 않고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치환한다.

⑤ '돌하르방'에 대한 형상화와 의미를 살펴보면, '돌하르방'을 수호신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에 알맞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⑥ 또한 '돌하르방'에 대한 다른 의미로는 세태의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모습의 돌하르방, 기다림의 대상인 돌하르방, 해학과 웃음을 주는 돌하르방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삼다'와 '돌하르방'의 문학적 의미는 결국 제주하면 떠오르는 내용에 대한 문학적 해석 작업이다. 작가는 제주 상징에 대한 의미를 문학으로 치환함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낸다. 이러한 작가의 활동은 결국 지역이 지닌 정체성과 이미지의 소산인 지역 상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핵심어: 지역 상징, 문학적 재해석, 문학지리학, 시적 형상화, 문학적 의미

<참고 문헌>

○ 기초자료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2』, 제주문인협회, 1996.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 제주문인협회, 1996.

제주문화원, 『문학속의 제주-시선집』, 제주문화원, 1997.

○ 논문 및 단행본

강영기, 『제주문학 담론』, 국학자료원, 2006, 260면.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5면.

김동윤, 「제주소설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영주어문』제13집, 영주어문학회, 2007, 111~129면.

김병택, 『한국 문학과 풍토』, 새미, 2002, 230~232면.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230~231면.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39~48면.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 공간-중』, 논형, 2005, 33~34면.

이현식, 『문화도시로 가는 길』, 다인아트, 2004.

<Abstract>

Literary Viewpoint of 'Samda' and 'Dolharbang'

Kang Young-Gi

This study proposes to examine the poetic embodiment of 'Samda' and 'Dolharbang'.

The examined poets, through their artistic imagination, shift the meaning of 'Samda' from the common sense to newly embodied figures. The fresh meanings are as follows.

'Stone' is the object living for the weak, the origin from which human longings are sustained and the guard of the island. 'Wind' is the central force that frees modern men from their inner exclusiveness and shutdown. 'Wind' is also 'han'(regrets) which Chejuean people bear. Also, Chejuean wind plays a role in curing 4·3's pain. Chejuean women or 'haenya'(woman divers) is described as the subject of production.

In the poetic description of 'Dolharbang,' it is the guardian god. It is also seen as the object dauntlessly protecting itself regardless of social change, which symbolizes Chejuean people waiting for something. The appearance of 'Dolharbang' sometimes gives them humor and laugh.

- Key words: regional symbol, literary reinterpretation, literary geography, poetic embodiment, literary viewpoint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3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